

세계지방자치동향



지방재정

- (한국)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출현황 분석

지방행정

- (일본) 「탄소중립」 중기목표와 제로카본 홋카이도(北海道)_지구 온난화 대책 조례의 개정을 사례로
- (일본) 일본의 지역 방재력 향상을 위한 해저드맵 작성 및 활용사례

지역발전

- (미국) 보스턴(Boston)시의 혁신 사무실_뉴 어번 메카닉스(New Urban Mechanics_NUM)
- (미국) 텍사스 주 San Antonio의 주민참여 제도-CivTechS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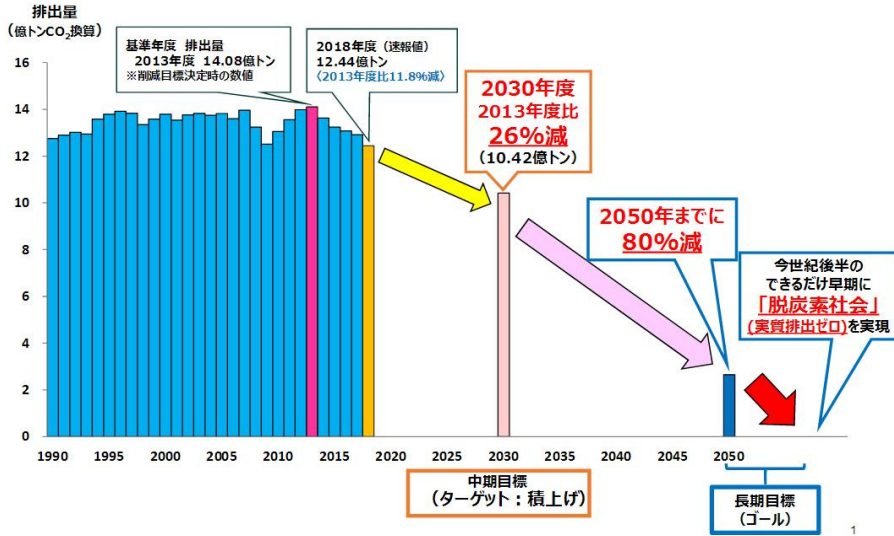
「탄소중립」 중기목표와 제로카본 홋카이도(北海道) - 지구 온난화 대책 조례의 개정을 사례로 -

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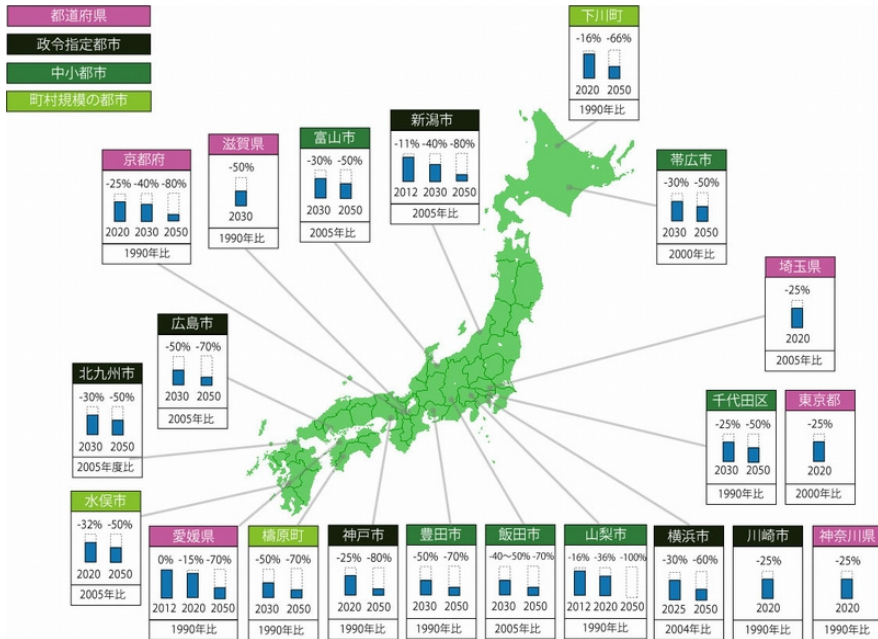
- 홋카이도는 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에 특화된 조례를 실시하고 있음
- 지방과 새로운 협의체 창설, 규제개혁 등 중앙정부의 정책동향과 연계함
- 중앙정부의 중기 목표 발표에 맞춰 선제적인 조례의 개정을 검토 실시함

스가 내각과 일본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 삭감 목표

- 2015년 일본은 현재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 삭감에 있어 “2030년도까지 2013년도에 비해 26% 감소한다”라는 중기 목표를 표명함
 - 기술적 제약,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대책 및 시책의 경험에 따른 실행 가능한 중기적 목표
- 2016년에는 “2050년까지 80% 삭감한다”라는 장기 목표를 처음으로 표명함
 - 미래 비전,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, 투자확대를 위한 장기적 목표
- 2020년 10월, 스가 총리는 “2050년까지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의 제로 달성”과 “탈탄소 사회”의 실현을 표명함
 - 규제개혁 등 정책을 총동원해 그린투자의 보급을 추진함. 그리고 탈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협의체를 창설하는 등 총력을 다할 것을 표명함
- 일본 정부는 중기 목표와 장기 목표의 일관성을 조정하여 2021년 11월, 영국에서 개최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‘COP26’까지 새로운 목표의 제시를 검토 중



| 그림 1 | 일본 온실효과 가스 배출 삭감의 중기 목표 및 장기 목표



범례 ● 도도부현 ● 정례지정도시 ● 중소도시 ● 정촌규모의 도시

| 그림 2 | 온난화효과 가스 삭감 목표 선도 지자체



| 그림 3 |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표명 지자체(2021년7월 현재)

온실효과 가스 감축과 지구 온난화 대책 조례

- 1998년, "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"이 교토 의정서의 채택에 따라 제정됨
- 지자체는 「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온난화 대책 계획을 마련하여 그 지역의 자연적, 사회적 조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의 억제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(19조 2항)
또한,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지자체의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함(21조)
- 2004년, 교토시가 전국 최초로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특화된 조례 “교토시 지구 온난화 대책 조례”를 제정함
- 조례 제정의 의의
 -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고 활성화하는 온난화 대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제시
 - 지역의 비전, 대책, 목적과 목표, 실시 분야, 대책 메뉴, 대책의 진행 관리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지속적인 진행을 담보함

-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 공론화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 인식이 공유되고 온난화 대책의 지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됨
- 지자체 고유의 규칙을 설정하여 특정 관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부여함
- 조례는 시민, 지자체, 사업자 등 지역의 관계자가 지구 온난화 대책에 따른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. 또한 지자체의 각 부서에서 온난화 대책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. 그리고 지자체의 상황에 특화된 규칙을 도입하기도 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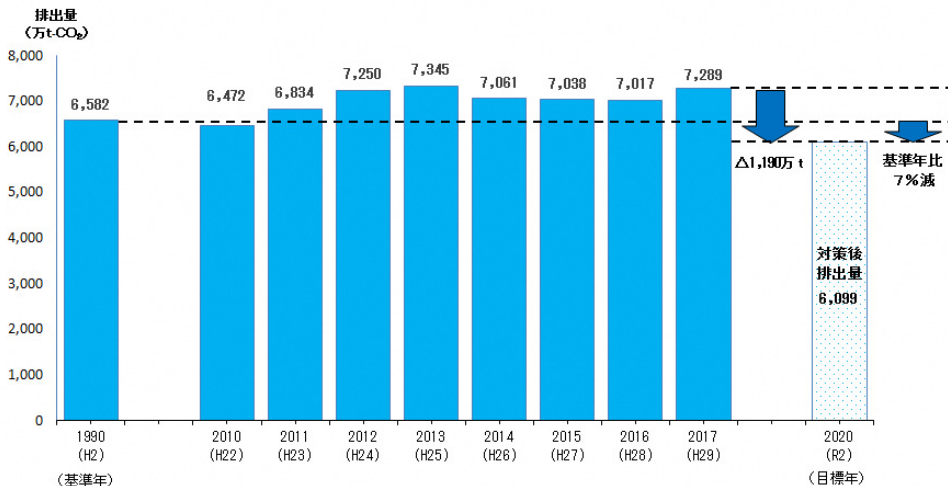
| 그림 4 | 치바현 소사시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

- 치바현 소사시는 재생 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황폐 농지를 활용함
- 현지 기업 “시민 에너지 치바 주식회사”가 중심이 되어 농가와 협력하여 황폐 농지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시함
- 수익 일부를 협찬금으로 조성하여 마을만들기 협의회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

홋카이도 도야코 정상회담과 홋카이도 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 조례

- 2008년, 홋카이도 도야코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구 온난화 방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와 지방의원의 제안에 따라 2009년 3월 31일, ‘홋카이도 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 조례’가 제정됨
- 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 조례는 지구 온난화 방지에 대한 홋카이도, 사업자, 도민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, 지구 온난화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설정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대책을 한 단계 더 추진할 것을 목적으로 설정됨
- 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 조례는 사회와 시장에서의 평가를 통해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자주적이며 계획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 방침임

- 2009년 3월 책정한 「홋카이도 환경 행동 계획」에 따라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 억제 등의 조치를 취함
- 온실효과 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신축·증축·개보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- 홋카이도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는 ‘탄소 중립’의 달성을 위해, 홋카이도는 2009년에 제정한 ‘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 조례’를 전면 개정 할 방침임
- 2021년 6월 18일, 스즈키 홋카이도지사는 중앙정부의 탄소 중립 중기목표에 따라 도의회에서 홋카이도의 ‘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 조례’를 전면적으로 개정 할 방침을 밝힘
- 홋카이도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‘실질적 제로’로 설정하여 2030년까지 온실효과 가스 감축 목표를 에너지 절약형 기자재와 차세대 자동차의 보급, 재생 에너지의 도입 등으로 2013년도를 기준으로 35% 감소를 목표로 함
 - 스즈키 지사는 “도민과 사업자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제로 카본 홋카이도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”을 표명함



| 그림 5 | 2017년도 홋카이도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의 비교

시사점

- 홋카이도는 홋카이도 도야코 정상회담 등 국제적 이벤트의 이슈를 지자체의 성장 계기로 판단함
- 지역주민과 사업자에게 지역에 특화된 의무 사항을 제시하여 선도적 조례를 실시함
- 중앙정부의 중기목표 등 정책동향과 연계하여 에너지 절약형 기자재와 차세대 자동차의 보급, 재생 에너지의 도입 등 새로운 정책 옵션을 제시함

자료출처

- 기후네트워크
<https://www.kiconet.org/local/local-activities/ordinance>
- FNN
<https://www.fnn.jp/articles/-/198581>
- NHK
https://www3.nhk.or.jp/news/html/20210422/k10012989501000.html?utm_int=news-politics_contents_list-items_001
- 일본외무성
https://www.mofa.go.jp/mofaj/ic/ch/page1w_000121.html
- 일본경제산업성
https://www.meti.go.jp/shingikai/sankoshin/sangyo_gijutsu/chikyuu_kankyo/ondanka_wg/pdf/002_03_00.pdf
- 일본환경성
<https://www.env.go.jp/earth/ondanka/ghg-mrv/emissions/results/mat191129.pdf>
<https://www.env.go.jp/policy/zerocarbon.html>
- JFS
https://www.japanfs.org/sp/ja/news/archives/news_id032743.html
- 지방자치연구기구
http://www.rilg.or.jp/htdocs/img/reiki/082_Carbon_neutral.htm
- 홋카이도 도청
<https://www.pref.hokkaido.lg.jp/ks/tot/jourei-top.html>
- 히라누마 히카루(2017) 「탄소중립에 있어 지역의 역할」 도쿄재단정책연구소
https://www.tkfd.or.jp/files/PR/Webinar/20210707/3.2_hiranuma.pdf

배 윤 통신원

(게이오대학교 종합정책학부 강사)